

「어깨너머」가 중요한 단서



이 광 구
한국기원 월간 바둑 편집장

바둑은, 처음에는 아마도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지 모른다. 물론 책을 통해서, 혹은 專門棋士로 부터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방법이 보다 정통적이고 체계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애초 바둑으로 입신양명하려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여가를 즐겁게 보내자는 취지로 바둑을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그

런 경우 책이나 강의는 아무래도 거부감을 주기 십상이다. 이미 이십년 가까운 세월을 학교에서 책과 강의에 시달려왔는데, 이제 취미생활에서 까지 그런 것들과 다시 만나야 한다니 말이다.

「어깨너머」라고 하면 뭔가 얼렁뚱땅 감기도 하고 왠지 사이버처럼도 여겨질지 모른다. 어깨너머로 배워서 뭐가 제대로 되겠으며 괜히 선부른 흉내를 내다가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무슨 일이든 기초가 잘 돼야 발전이 빠르고 지속적인이라는 것, 이건 상식이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이치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데에 또한 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린이들이 한글이나 숫자를 깨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모에게 혹은 유치원 같은 곳에서 선생님께서 반강제적 내지는 징해진 스케줄에 의해 이른바 조기교

육을 철저히 받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유치원 같은 데에 다니면서도 사실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어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가끔 한 두가지씩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아이들도 있다.

전자가 한글이나 숫자를 빨리 깨치고 기초를 잘 쌓아갈 것은 당연하다.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해서도 당분간은 앞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 국민학교나 중학교 때 성적이 조금 좋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으로 두 아이의 공부에 있어서의 승부를 가름할 수가 있는 것일까.

조기교육의 효과를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처음 배울 때 재미를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어깨너머」 지지론을 펴기 위해 다소 진부한 비유를 들었을 뿐이다.

바둑은 처음 배울 때가 어렵다.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

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어렵다. 바둑은 집짓는 게임이다. 집을 많이 짓는 편이 이긴다. 상대방이 집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는데 내 돌이 상대방 돌에 의해 포위되면 그 돌은 상대방의 포로가 된다. 입문자가 알아두어야 할 게임물은 이것 뿐이다. 세상에 다른 어떤 스포츠나 또는 앉아서 하는 게임이거나를 막론하고 이처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이처럼 너무 간단하고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다. 바둑은 처음 찾아오는 손님을 친절하고 아기자기하게 안내해주지는 않는다. 조금 무뚝뚝한 편이다.

그래서 「어깨너머」를 권하는 것이다. 석구 중의 누가, 또는 친구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가끔씩 우연히 구경하다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자주 구경하게 되고 그러다가 「저 조그만 나무판 위에 희고 검은 돌을 놓는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

「그만 일에 뭘 그렇게 좋아하고 붉으락 푸르락할까」를 의아해하다가 어느 순간 「아, 그런 것이구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어깨너머」의 진행경로이다.

「어깨너머」는 참으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어깨너머 구경을 하면서 흥미를 느꼈다면 그 사람은 바둑을 배우면 잘 돌 소지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둑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내켜서 한

다, 바둑을 배울 때도 이것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바둑은 처음은 간단하지만 실력이 조금씩 늘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만큼 재미있어지고 오묘해진다. 바둑의 깊이를 말해주는 일이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장 잘 이끌어내는 방법이 「어깨너머」라고 지금까지 강조해왔지만, 입문 단계가 지나고 나아가 급수가 홀자리 숫자(10급 돌파)로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어깨너머」로는 통하지 않는다. 책을 보아야 하고 상수한테 의문점을 물어보아야 한다. 실력의 향상에는 몇 단계의 구분이 있다. 10급(일반 시중 기원에서 통용되는 급수, 이하 같음) 안팎에서 6~7급까지는 쉽게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거기서 3급까지는 조금 어렵다. 매일 여러 판을 둔다고 해서 금방금방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다. 이쯤에서는 포석의 요령, 행마의 요령 등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좋다.

3급에서 1급까지는 조금 더 어렵다. 만년 3~4급이 많은 것을 보면 과연 그렇다. 이 수준에서는 웬만한 맥점은 익혀두어야 하고 아울러 끝내기 요령에 관한 책을 보도록 권한다.

정석은 물론 중요하다. 도대체 정석을 모르고서는 실력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석은 외어서 판 위에 나열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석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다. 구태여 어려운 정석을 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아마튜어의 경우 정석이나 포석에서 승부가 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한 번 잘 두는 바둑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활문제의 연습을 적극 권장한다. 보통은 귀찮아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인데, 사활문제, 즉 보수가야 말로 수읽기와 돌의 형태에 관한 감각을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교사이다. 수읽기가 강해지고 감각이 좋아지는데 바둑이 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전을 통해 체득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화초바둑」 「습취 바둑」이 되기 쉽다. 많은 실전, 많은 역전패를 경험하는 사이에 책 속에서 얻은 지식이 자신의 것이 된다. 특히 상대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저 친구한테만은 지기 싫다」라고 느껴지는 라이벌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라이벌과 격전을 치른 후 진지한 復棋를 곁들이면 금상첨화.

바둑판이나 알·통 등은 너무 고급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너무 싼 것으로 두면 아무래도 「맛」이 덜하게 되므로 2치 정도의 탁상용(2만원), 바둑판에 8천~1만원의 알, 5천~1만 5천 원 정도의 통이라면 무난하다. 그러면서 바둑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격조가 높아지면 점차 좋은 것으로 바꾸도록 한다.

바둑은 처음 배울 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기에 당신이 구경하는 바둑, 그 바둑을 두는 두 사람이 적어도 바둑을 둘 때만은 실로 한 치를 양보함 없이 마구 으르렁거리기는 라이벌이라면 더욱 좋다. ■